



2022

임팩트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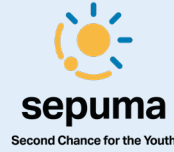
세상을 품은 아이들



sepuma

Second Chance for the Youth





세상을품은아이들 임팩트 리포트



서울에서 한시간 반을 꼬박 달려가서 만난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은 포천의 자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느 시골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건물은 예전 초등학교의 본관입니다. 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생활관과 강당이 양 옆으로 서 있고, 마주보고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다시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나 마주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낯설 법도 한데, 꾸벅 인사를 하더니 다시 경기에 열중합니다. 나무가 유독 백백한 마을에서 20명의 선생님과 30명의 아이들이 매일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2008

- '독립군'이라는 한 아이를 돌보면서 '세상을품은아이들' 시작

2009

- 비전투어 시작
- 2009 몽골
- 2010 제주도-홍성
- 2011 캄보디아
- 2015 캄보디아

2010

-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한다"는 솔루션을 찾고 MG(Miracle Generation)밴드 활동 시작

2011

- 인천지방법원 신병인수위탁 시작

2016

- 7월 산티아고 순례의 길 "나를 떠나 나에게로 오는 먼 길"
- 06월 인천가정법원 6호 기관 인가

2014

- 세상을품은아이들 사단법인 인가, 명성진 대표 아쇼카펠로우 선정

2012

- 몽골 힐링캠프 시작, 세품아 페스티벌 개최 [2012~현재]
- 2012.02 reborn
- 2013.01 향해
- 2014.01 인투더아레나
- 2015.01 최고의 선물
- 2015.10 점프
- 2016.10 TURN OUT
- 2017.09 데미안의 초상
- 2018 일공공일

2017

- 미래교육연구소 'SEPUMA Lab' 개소

2020

- 세상을품은아이들 법인 이전 (경기도 포천시)
- Snail Lab 출범
- 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호기관 인가

2021

- 서울가정법원과의 6호 기관 인가
- 똑똑교재 vol.1, 2 발간

2022

-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참여

비전

대한민국#1 세컨드 찬스 메이커
Second Chance Maker

미션

- 넘어진 다음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 최선의 보호와 최고의 교육을 통해 그들이 성숙하고 탁월해지도록 안내한다.
-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발굴하고, 창업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재발견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심가치



“한 명의 아이에게 도움을 주며 시작했던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은 부천에서 교회 주변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밥과 잠잘 곳을 제공하던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드 중독 청소년들을 돌보다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확산이 가정의 붕괴와 해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고 그룹홈 방식, 특히 5-7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그룹홈 3개를 묶어 확대 가정 형태를 갖춘 그룹홈 클러스터를 고안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16주년을 맞은 올해도 (사)세상을품은아이들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 교육, 치유하고 나아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세품아는 조직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해왔습니다. 지역 사회의 요청에 돌보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 지금은 20명이 넘는 청소년이 함께 생활합니다. 2014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2016년에는 6호처분 수탁기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발굴하는 일이, 이제는 주로 6호 처분을 받고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



현황표

생활관 인원	17명
그룹홈 인원	4명
자립홈 인원	5명
선생님 재직인원	20명
학생 1인당 교육비(월)	900,630원
학생 1인당 장서	88.3권
학생 1인당 기숙사면적	16.9㎡

부천에서 포천으로 이사온지 4년,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Snail Lab의 출범,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전문교육 기관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커리큘럼 검증과 정립을 통해 교육 모델 확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개인, 한 기관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기청소년과 6호처분기관 현황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최대 10명 중 1명, 마음보호 예방 확대

“위기청소년”은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둘러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한 위기로 인하여 온전한 일상을 가질수 없어 통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자료’를 재구성한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위기중복률 50%)는 최소 95만7725명(8.0%)에서 최대 114만9835명(9.6%)으로 파악됩니다.

사각 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 속에는 두 가지 시선이 병존합니다. 한 가지 관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등을 근거로 청소년들은 더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지능화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외치며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른 관점은 더 반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들을 돌보려는 사회의 노력이 불충분했고,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가 전달되지 못했으며, 안전망이 부재함을 지적합니다.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두 시선의 한가운데 놓인 것이 범죄 청소년에 대한 ‘6호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1호처분(가정 위탁감호)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중 1~5호 처분은 ‘사회 내 처분’ 6~10호 처분은 ‘시설 내 처분’에 해당합니다. 6호 처분은 민간기관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처분을 이행하여 지역사회와 시설처우의 중간 처우의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2만2천여명의 보호처분 중 약 1,400명이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요약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6호 처분의 목적은 '적극적인 심성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비행을 뉘우치게 함과 동시에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나아가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과연 6호 기관의 현 상황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되묻습니다.

먼저, 6호 기관에 현재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6호 처분 보호시설에 대한 지자체 재정지원은 보호소년 1인당 월 지원금 712,323원으로 교화를 위한 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정 뿐 아니라 인적 자원 보충도 시급합니다. 2018년 기준 6호 처분 보호시설 종사자의 1인당 관리인원은 적게는 3명이며, 많게는 9.3명으로, 대다수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비율(종사자 1인당 7명)을 충족하기도 어렵습니다. 열악한 지원 상태로, 교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됩니다.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평가지표가 이탈율과 재범율이라면, 각 기관은 교육보다 감호에 더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집니다.

둘째,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인 보호 처분 기간만으로는 아이들의 환경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변화가 시작된 아이도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이 세품아의 오랜 경험입니다. 사회로 되돌아 갔을 때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같은 비행을 저지를 유인이 많아집니다.

셋째, 깊은 변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6호 기관은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이 부재하여 각 기관의 역량에 따라 차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강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 교과목 학습이 아닌 가족관계회복, 공감능력,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이는 교육비용 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50명의 아이들에게는 50개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6호 처분이 단순히 6개월동안의 보육 혹은 감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위한 환경과 노력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품아는 아이들의 일상 회복, 치유, 과거와의 단절, 미래계획, 자립 등을 위해 일합니다. 한 명의 건강한 어른을 길러내는 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품어주지 못한 아이들이 거꾸로 세상을 품는 날까지. 앞으로도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서 걷는 일입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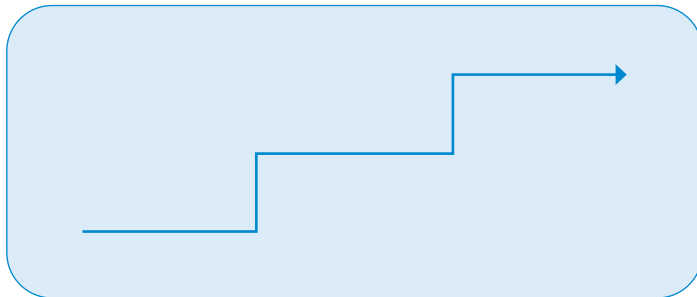
생활관부터 자립홈까지 세상을품은아이들이 겪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세 품아에서는 변화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일구어냅니다.

세품아 변화의 첫번째 모듈은 돌봄을 통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불안했던 모습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세품아는 이 과정을 '기분을 세우는 일'이라 말합니다. 아이들의 의지를 세우고, 습관을 만들고,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세품아는 아이들의 기준점을 바꾸어 나갑니다. '너희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 이 생활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 자립의 첫번째 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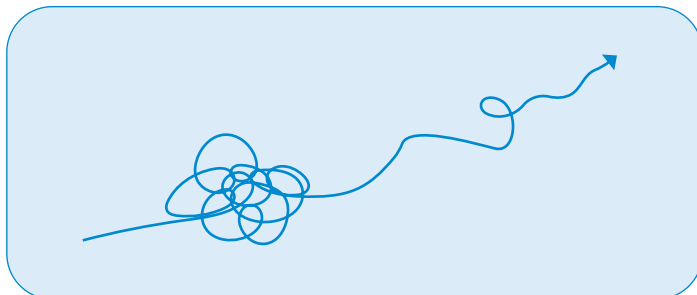
두번째 모듈은 교육학습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표 프로그램 몸, 여행, 음악과 과정별 시그니처 프로그램 등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근육을 채워나갑니다. 세품아는 교육의 목표를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실현하고, 자기화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변화 모듈은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사회로의 복귀 준비입니다. 변화를 체험한 아이들은 세품아 프로그램을 통해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단절된 환경 속에서 생긴 변화들이 밖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재화하는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변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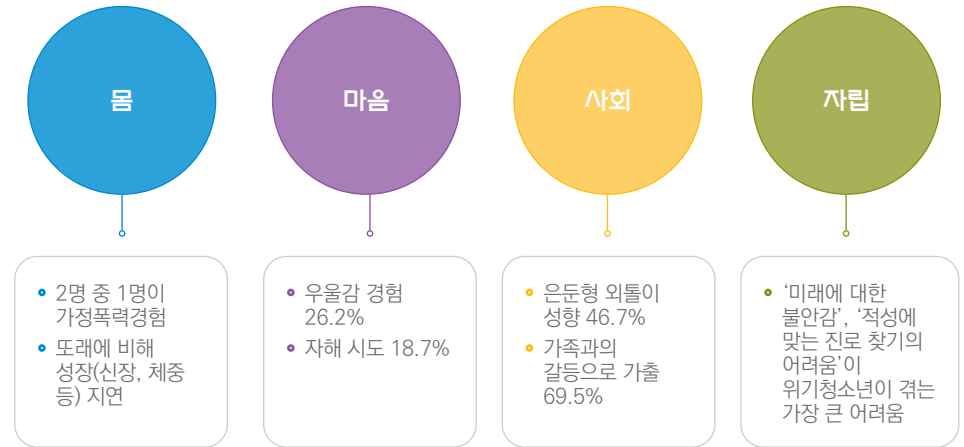
세품아에서 생각하는 변화곡선



이런 변화의 과정은 결코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활이 잘 잡혀 교육 단계에 접어든 아이도 때로는 기본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쌓아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한달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지만 보다 더딘 아이들도 있습니다.

세품아 이전의 모습*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2022), 여성가족부



(밖의 생활로 복귀하면) 혹시 걱정되는 거는 없어요?

원래 약간 안 좋은 애들이랑 놀았는데, 다시 개네랑 어울려서 놀면서 사고 칠까 봐.

'OO이에게 밖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세품아에 오는 위기청소년들은 범칙에 쉽게 노출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가출을 경험한 비율도 높습니다. 가출의 이유는 주로 '가족간의 갈등'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비율은 19.8%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청소년은 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26.2%), 자해를 시도해본 청소년 비율(18.7%),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9.9%)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기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세품아의 아이들에게 밖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니, '단절된 환경, 중독, 발전 없는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세품아 이전의 삶을 두고 '관심사도 없고, 무의미한 삶, 방황하는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어도 부모님이 일을 하는 등의 이유로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의 시간이 없는 부모님과 아이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른들과 의사소통은 줄어들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특히 공부 앞에서),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없다고 느낍니다. 밖에서의 삶이 '불안'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중독으로 쉽사리 이어집니다. 처음 입소할 때 대부분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흔하게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혹은 SNS 중독에서부터, 환각약물(본드)에 이르기까지 중독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단절된 환경에서 아이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질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현재 중심으로 사고하여 충동적,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품아 들어오기 전) 좀 더 멀리 있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재미를 쫓아가는 친구들을 곁에 뒀었던 것 같아요. 당장의 재미란 그냥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재미...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혀서 자신이 보는 재미 같은 것어요.

김세품(가명)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생각도 없고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을 세우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사 차상민

변화의 과정

아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세품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밖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변화 이전' 단계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립'까지 단계를 거칩니다. 생활관 - 그룹홈 - 자립홈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그에 맞게 설계된 교육과정(챌린지 랩 - 체인지 랩 - 찬스메이커랩)을 병행합니다.

세품아는 동시에 교육을 통한 변화를 꿈꿉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소통관계능력, 다르게 보는 능력, 끝장을 보는 능력, 누군가를 돕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세품아 교육 목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실현하고, 자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존재가 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발견하고 그 존재가 되어지도록 한다.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양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것이 자기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지식은 널려있다. 배울 수 있는 길도 널려있다. 그것을 배우는 이유와 그것을 배우는 열정과 배우는 과정을 견뎌냄을 넘어서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교육한다.



세품아 교육돌봄 과정 Overview

	Challenge Lab	Change Lab	Chancemaker Lab
BASIC	1:1 개별미팅 조회&종례(지식인) 일기(기본)	1:1 개별미팅 아침열기(다음노트) 일기(감정&감사)	1:1 개별미팅 아침열기(다음노트) 일기(감정&감사)
몸챙김(Bodyfulness)	PT(전체) 마라톤 축구	PT(개별/그룹) 자전거(주1회) 축구	PT(개별/그룹) 자전거(마일리지) 축구
마음챙김(독서)	독서모임[ABC] 필독서6권+에세이1권	독서[책임기/글쓰기] 필독서6권+에세이1권	오디오북
지식챙김(기초학습)	초등수학 파닉스영어 영단어 1000	초.중 30일 완성 마블시리즈 영어 한국사 3급	스티븐영어 한국사2급/1급
시그니처	똑똑수업 [Knock Knock]	아이브러리 [Library]	유니버시티 [Youniversity]



**생활관:
챌린지 랩
(Challenge Lab)**

신입 적응 과정 1일 ~ 1주일(1주)	생활관 프로그램 1주일 ~ 5개월 2주(22주)	마무리 프로그램 5개월 2주 ~ 6개월(3주)
<p>INT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절차 - 생활관 규칙 숙지 <p>BA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OT: 공간 사용 규칙, 필수/선택/선발 프로그램 소개, 교사 소개 - 검사: YSR, 문장완성검사 - 자기 소개: 자서전 작성/ 가족 인물 그림 그리기/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글 작성 - 생각 펼치기: 도서/ 영화 - 조작활동: 퍼즐 맞추기, 비즈 그림 완성하기 <p>OUT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테스트 - 6개월 후 나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p>BA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상담 (1인당 주 1회 1시간) - 조례/종례: 스케줄 - 일기 	<p>TRACK1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수업 - 돈과진로수업 - 몸 수업 - 음악 수업 - 금연지원상담 <p>TRACK2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산 - 영단어/파닉스 - 독서모임 - 개별공부 - 검정고시공부
	<p>퇴소 준비 과정(필수/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상담 ☑ '세동이의 6개월' 제작 본인이 세동아에서 보낸 6개월을 돌아보며 인생그래프 형식으로 6개월을 표현하도록 함 ☑ 퇴소식 	<p>그룹홈 이전 준비과정(필수/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T (Second Chance Table)

세동아에서의 생활은 생활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관 교육은 단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몰입과 집중을 통하여 성공을 경험하며, 생각을 깨우고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법적처분)에 직면하여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이들로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소 초기 적응기는 아이들이 밖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세동아에 오고 첫 2주의 아이는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적응 단계에서 겪는 생활관 내부의 다툼이나 선생님과의 불화가 있기도 합니다. 적응기에는 교육 OT와 생활관 규칙을 숙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알아갑니다. 세동아 적응 후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한 생활관에서의 생활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필수 수업으로 소통과 공감을 배우는 똑똑수업, 창업 및 투자를 배우는 돈과진로 수업, 세동아의 대표 프로그램 몸, 음악 수업을 수강하고 개별 학업 욕구와 수준에 따라 선택 수업을 수강

* **Second Chance Table**
자발적으로 세동아에 남아 교육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중 자신의 이전의 삶의 평가와 이후의 계획들을 발표하는 과정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동아를 나가기로 결정한 아이들은 퇴소절차를, 세동아에 남아 필요한 보육과 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아이들은 두차례 SCT*를 진행하여 확실한 진로 설정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차 SCT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룹홈 이전의 의지, 계획을 발표하고 2차 SCT 때 교사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홈 이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여 앞으로의 탄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생활관에서 아이들은 2~4인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힙니다. 생활을 통한 습관의 형성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변화에서 교육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이전에 가족과 보내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사는 친구와 선생님과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숙직의 부담을 무릅쓰며 아이들을 돌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생활지도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멘토이고, 엄격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생활의 기본이 잡히는 시간은 6개월 정도로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회복, 치유되면서 다툼이 줄어들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태도가 변합니다. 상담의 내용도 구체적인 진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생활관 담당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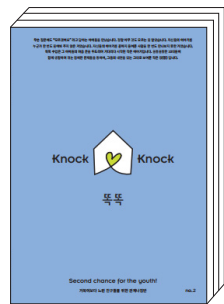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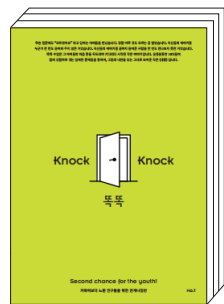
생활관 주중 일과표(예시)

시간	일과표(생활관)
08:00 ~ 08:30	기상 · 자리 정리 · 세면
08:30 ~ 09:00	아침식사
09:00 ~ 09:20	조례
09:20 ~ 09:50	정비
10:00 ~ 12:00	수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7:40	수업 및 멘토링 프로그램
17:40 ~ 18:00	종례
18:00 ~ 18:30	저녁식사
18:30 ~ 20:30	샤워 및 청소
20:30 ~ 21:00	QT
21:00 ~ 22:30	자유시간 및 일기 작성
22:30~	소등 및 취침

※개인별로 시간표 상이

주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조례 정비	조례 정비	조례 정비	조례 한국사	조례 축구 수업
10:00-11:00	음악 레슨	똑똑 수업	똑똑 수업	한국사	축구 수업
11:00-12:00	일대일 미팅	똑똑 수업	똑똑 수업		
13:00-14:00		기초연산	기초연산		
14:00-15:00		기초연산		금연지원상담	그룹피티
15:00-16:00	검정고시 공부		독서모임		일대일 미팅
16:00-17:00		몸 수업	독서모임 영어 파닉스	몸 수업	
17:00-18:00	팀 운동	몸 수업		몸 수업	



똑똑 수업 Knock knock

아이들의 내면을 두드린다는 뜻의 똑똑 수업은 세피아의 생활관 시그니처 수업입니다. 세피아는 아이들이 소통에 매우 서툴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입소 시 아이들은 대부분 '네,아니오' 위주의 단답형 소통에 익숙한데, 이는 생각의 근육이 부족해서 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똑수업의 주제들은 아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감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똑똑수업의 목적은 학습능력의 신장이 아닌 관계·공감·소통의 경험입니다.

“세피아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에 대해, 그 감정의 원인에 대해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퍼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듣습니다. 각자의 진심에서 퍼낸 이야기를 스스로 쓰고 함께 읽습니다. 똑똑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남들 앞에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남들의 감정을 자세히 듣는 과정도 경험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남의 입장에 서보는 귀한 생각 훈련도 하게 되고, 구겨졌던 자존감을 반듯하게 회복하는 열매도 얻고 있습니다”

똑똑수업 소개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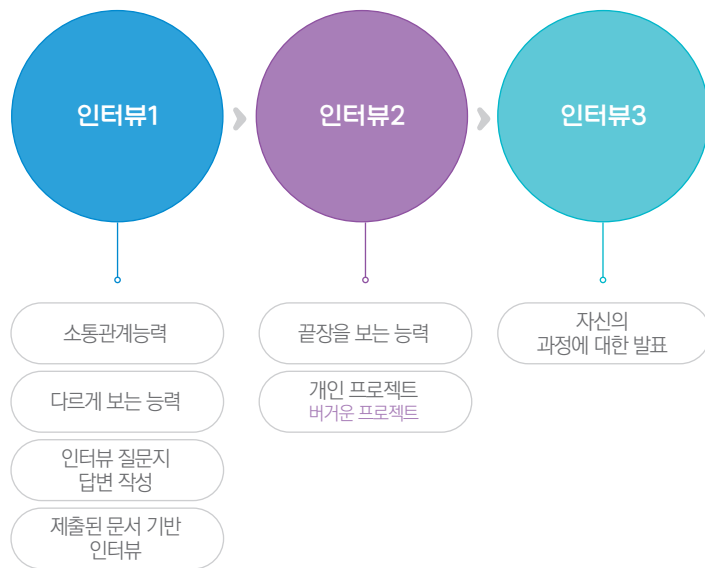
그룹홈:
체인지랩
(Change Lab)

그룹홈 적응 과정 3일 ~ 7일(1주)	그룹홈 프로그램 3일 ~ 5개월(21주)	마무리 프로그램 5개월 ~ 6개월(4주)	자립홈이전 준비 과정(필수/선택)
<p>INT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백업: 생활관(생활&교육) 피드백 <p>BA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상담 - 교육 OT: 공간 사용 규칙, 필수/선택/선발 프로그램 소개, 교사 소개 - OO이의 시작 노트 작성 <p>OUT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와의 약속 모두에게 받기 - 선생님들에게 응원 메시지 받기 	<p>BAS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개별 코칭 (1인당 주 1회 30분 이상) - 아침조회/종례 - 일기 <p>TRACK1(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챙김 - 마음챙김 - 지식챙김 - 아이브러리 - 그룹홈 회의 <p>TRACK2(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 음악 - 개인학습 	<p>퇴소 준비 과정(필수/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상담 ☑ 퇴소상담: 6개월 점검 ☑ 마인드맵: 앞으로의 6개월 ☑ 퇴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3회 이상) - 교사 추천서 획득

그룹홈에 입소한 아이들은 6호 위탁 후 Second Chance Table(SCT) 과정을 통과한 아이들로,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세피아의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자기다운 삶을 고민하도록 교육하며, 특히 건강한 루틴 형성,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과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룹홈에 들어온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룹홈 규칙 숙지와 필사, 생각열기, 2,4,6개월 목표 설정 등 내용 작성을 통해 SCT에서 진행한 내용을 확장합니다. 공동체와의 약속과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의 생활을 다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몸챙김 수업, 한달에 한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마음챙김 수업, 수준별로 분

반하여 학습하는 지식채널, 그룹홈 시그니처 아이브러리 수업을 수강하며 주 1 회 그룹홈 회의를 통해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음악 수업은 악기는 최소 한가지씩 선택하여 누구나 음악을 즐기고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받게 됩니다. 그룹홈에서 생활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자립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Snail Lab의 대안교육을 받는 과정이기에 이전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세번의 인터뷰를 거치며 정식 입학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립홈 전환 인터뷰



그룹홈 주중 일과표(예시)

시간	일과표
8:00 ~ 8:30	기상 · 자리 정리 · 세면
8:30 ~ 9:00	식사
9:00 ~ 9:30	아침 조회
10:00 ~ 12:00	1교시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5:00	2교시
15:00 ~ 17:00	3교시
17:00 ~ 18:00	4교시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0:00	샤워 및 청소
20:00 ~ 23:00	개인 학습
23:00~	소등 및 취침

※개인별로 시간표 상이

주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00 ~ 12:00	아침 조회 음악	아침 조회 축구	아침 조회 그룹홈 회의	아침 조회 지식채널[영어]	아침 조회 지식채널[책, 책, 책]
13:00 ~ 15:00	지식채널[한국사]	아이브러리	아이브러리		지식채널[한국사]
15:00 ~ 17:00	지식채널[수학]	아이브러리	아이브러리	몸챙김[라이딩]	지식채널[수학]
17:00 ~ 18:00	몸챙김[PT]	몸챙김[PT]	몸챙김[PT]	몸챙김[라이딩]	몸챙김[그룹]
19:00 ~ 23:00	개인 학습	개인 학습	개인 학습	개인 학습	개인 학습

아이브러리(library)

그룹홈 시그니처 수업 아이브러리 수업은 자기다움을 찾고 배워가는 첫번째 과정입니다. 성품과 감정에 대해 알아가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자기화하여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육합니다.

- 하나의 주제를 깊숙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위주 진행(예:1호 프로젝트 "HATE") / 문제 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 주제선정 > 다양한 경험(영화/전시/여행/책 등) > 나의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재해석 > 결과물 내기(글/음악/인터뷰/그림/시 등) > 발표



**자립홈:
챌린저 랩
(Chancemaker Lab)**

자립홈 프로그램

TRACK1 (필수)

몸 챙김[개인/자전거]

- ① 자전거
 - 주 1회 × 8시간
 - 매주 수요일은 라이딩데일로 2달에 누적 1000km 달성하기 (한계도전하기 프로젝트)
- ② 개인 운동
 - 주 3회 × 1시간
 -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타바타&맨몸운동&서킷 트레이닝] 목표치를 설정해두고 운동(한계도전하기 프로젝트)

마음챙김 [월라를 찾아라]

- 주 2회 × 3시간 수업
- 책을 오감으로 만나기 [오디오북, 도서, 영화, 드라마, 다큐 등]
-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기, 독서노트 작성

지식챙김 [영어/한국사]

- 영어 주 1회 × 3시간 / 스티븐 영어로 이미지 영어 배우기 [단어/원서읽기]
- 한국사 주 2회 × 2시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기준
- 일상생활 또는 사회 기초지식 습득

시그니처 [유니버시티]

TRACK2 (선택)

여행

-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진행
- 상황에 따라 1:1 개별여행, 도보여행, 자전거 여행, 가족 여행 진행 가능

음악

- 악기[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등]당 주 1회 × 30분 개별수업
- 본인이 원하는 악기 선택하여 레벨에 따라 초급·중급과정 진행

돕는자의 시간

- 주2일 × 2시간
-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시간, 받기만 했던 삶에서 누군가를 돕는 삶으로의 전환

자기개발시간[내부/외부]

- ① 외부
 - 주 1일 × 5시간
 - 자신이 가고 싶은 길들과 관련된 분야를 외부에서 공부하는 시간
 - 개인 외출 가능
- ② 내부
 - 주 5일 × 4시간(19:00~23:00)
 - 자신이 가고 싶은 길들과 관련된 분야를 내부에서 공부하는 시간
 - 그 외 일과 시간에 주어진 학습 과제 진행

그룹홈까지는 법적인 처분이 지속되나 자립홈부터는 보호 청소년의 처분기간이 아닙니다. 자립홈의 이들은 자신의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선택하고 부모님의 동의 속에 대안 교육기관인 Snail Lab에 진학한 아이들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지내온 아이들이 개인의 의지 확인과 여러 차례의 상담을 거쳐 자립홈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자립홈에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강합니다. 이전까지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자립홈에서는 남을 돕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자립

홈에서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전의 몸, 여행, 음악, 마음, 지식 수업들을 듣고 자립홈 시그니처 수업인 '유니버시티' 수업을 통해 '나다움'에 대해 고민하고 찾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립홈의 아이들에게 이전 과정보다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단절된 환경에서 쌓은 힘들을 외부수업과 활동을 하며 밖에서도 다져나갑니다. 이 자유에는 선생님과 오랜 시간 지내며 상호간에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주어진 자유와 뒤따르는 책임감을 조율해가며 신뢰는 굳건해집니다.

자립홈 주중 일과표(예시)

시간	일과표
8:00 ~ 8:30	기상 · 자리 정리 · 세면
8:30 ~ 9:00	아침식사
9:00 ~ 12:00	1교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2교시
15:00 ~ 17:00	3교시
17:00 ~ 18:00	4교시
18:00 ~ 19:00	저녁식사 및 청소
19:00 ~ 23:00	자기개발시간
23:00~	샤워&소등&취침

※개인별로 시간표 상이



주간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9:00 ~ 12:00	마음챙김 [월라를 찾아라]	마음챙김 [월라를 찾아라]	라이딩 데이	마음챙김 [월라를 찾아라]	마음챙김 [월라를 찾아라]
13:00 ~ 15:00	자기개발시간 [외부]	지식챙김[한국사]	라이딩 데이	자기개발시간 [외부]	지식챙김[한국사]
15:00 ~ 17:00	Youniversity	Youniversity	라이딩 데이	Youniversity	Youniversity
17:00 ~ 18:00	몸챙김	몸챙김	몸챙김	몸챙김	몸챙김
19:00 ~ 23:00	자기개발시간 [내부]	자기개발시간 [내부]	자기개발시간 [내부]	자기개발시간 [내부]	자기개발시간 [내부]

유니버시티(Youniversity)

자립을 시그니처 수업 유니버시티는 자기다움을 찾는 심화 과정입니다.

자기다움1 나를 찾아서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잘 할수 있는가?
Program ① 자신의 자서전 쓰기
Program ② 부모님의 자서전 쓰기

자기다움2 나답게 사는 것이란?

나는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에 가슴이 뛰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자기다운 삶 찾기
Program ① 나의 슈퍼스타: 위인들로부터 배우기(연구사례 발표 및 강의)
Program ② 사람책으로 배우기: 현존하는 사람의 책들로부터 배우기
Program ③ 나답게 사는 것이란?

자기다움3 나답게 살기 위하여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맞춤형 배움 프로젝트

변화의 모습



KCI(Key Change Index)

세품아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총 4가지 분야로 조망합니다.

기존 정부 평가의 KPI는 6개월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에만 평가 목적을 두었다면, 세품아는 최종 목표인 아이들의 자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변화가 KCI를 구성합니다. 세품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몸, 마음, 사회, 자립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신체활동 실천율

신체활동 실천율

운동능력 증가율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5km 달리기 평균 기록, 버피챌린지

신체발달

키, 몸무게,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행동평가척도(YSR) 정상범위 전환율

행동평가척도(YSR) 정상범위 전환율

변화의지

생활관 → 그룹홈 전환율, 그룹홈 → 자립홈 전환율

치유활동 참여율

여행 횟수, 음악 공연 횟수

소통

일주일 동안 가족과 전화 횟수, 주당 상담횟수

공동체 참여

종교 활동 참여 횟수, 식사준비/마무리 참여 횟수, 청소 참여 횟수

취업률

취업관련 자격증 수, 취업률

학업 지속율

검정고시 합격률, 진학률

창업률

창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창업 인원

자기관리능력

평균 기상 시간, 약물 사용 이력 비율, 게임 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하루에 혼자있는시간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몸의 변화

1.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신체활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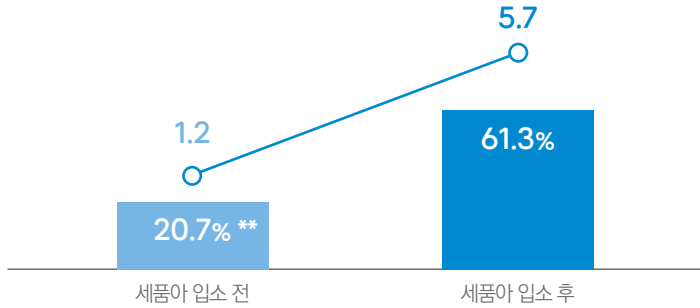
신체활동의 변화

■ 신체활동 실천율* ○ 주 평균 신체활동(운동) 횟수

* 신체활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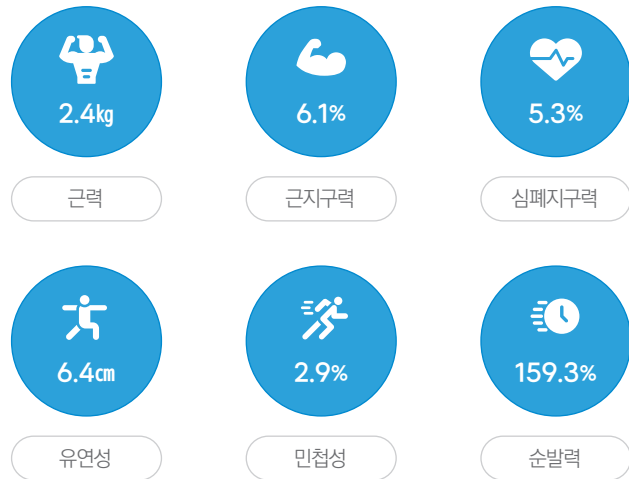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 남자 청소년 평균 신체활동 실천율, 2021년 기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던가요. 세상아에서는 아이들의 몸의 변화가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변화는 절제된 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의 결과입니다. 몸 수업은 변화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세상아는 몸 수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2. 세상을품은아이들은 6대 신체능력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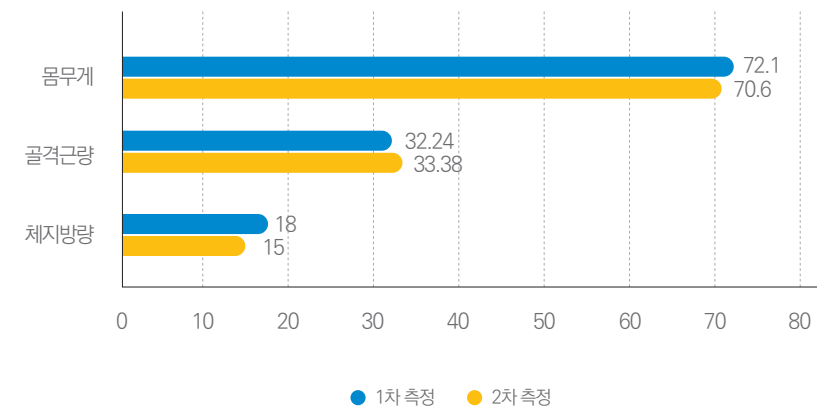
세상아의 운동프로그램은 운동 수행능력을 골고루 상승시키는데 맞추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아 학생들은 매 짝수달에 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에 따라 신체능력(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검사합니다.

3.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신체가 발달합니다.



성장기인 청소년들은 급격한 속도로 키와 몸무게도 늘게 됩니다. 집 밖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식사를 하던 아이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서 세상아에 있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인바디를 측정하여 아이들의 식단을 통한 성장도/변화도 등을 파악합니다. 몸무게와 체지방량은 줄어 들고 골격근량은 늘어나 균형 잡힌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바디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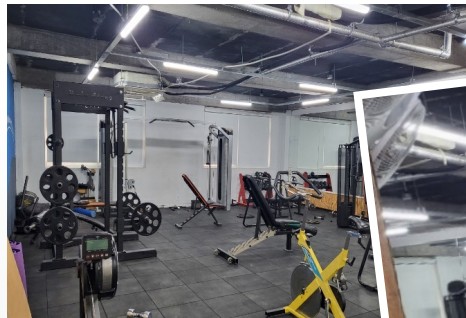


몸챙김 수업

아이들은 단계에 따라 주 3회에서 5회 몸 수업에 참여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훈련과 스포츠가 어우러져 체력 증진과 운동에 대한 흥미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활관	그룹홈	자립홈
주 3회	주 4회	주 5회
축구 1회(유산소) 버핏 2회(무산소) 마라톤 2회(유산소)	축구 1회(유산소) 인터벌 트레이닝 2회(무산소) 자전거 라이딩 1회(유산소) + 개별 운동	축구 1회(유산소) 인터벌 트레이닝 2회(무산소) 개인 PT 1회(무산소) 자전거 라이딩 1회(유산소)
공통: 아침 스트레칭과 국민체조		

2, 9월에는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이 건전한 경쟁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의 변화

1.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정서, 행동, 적응능력을 회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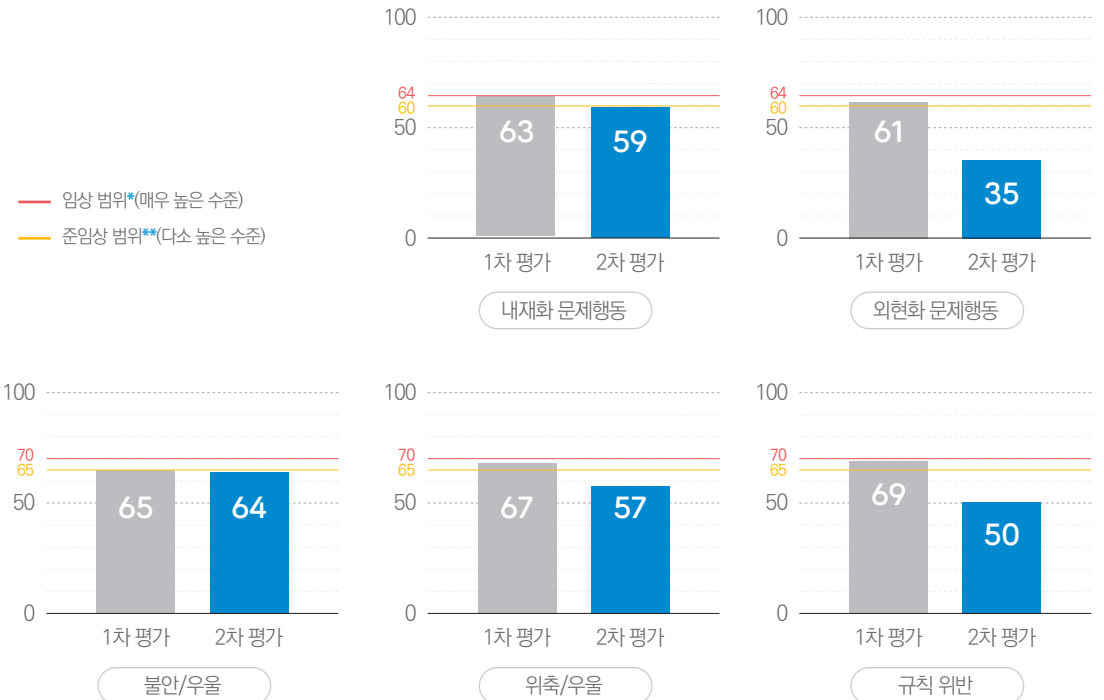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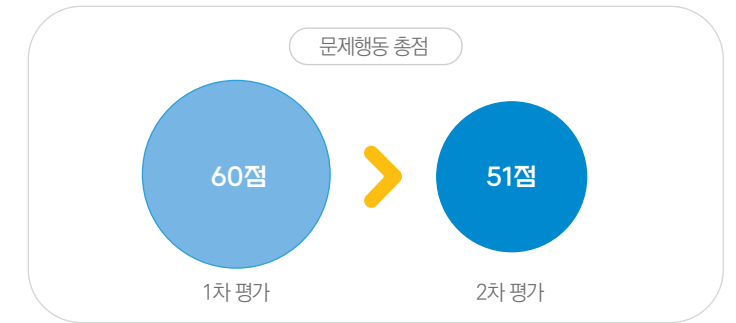
세상을품은아이들 중 77%는 적응기간 동안 정서, 행동, 적응능력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하였습니다.

YSR행동평가척도 검사는 현재 아이들의 문제행동 및 정신건강 영역 뿐 아니라 적응 상태 및 감정 자원까지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세품아에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면적 정서 문제와 규칙 위반, 공격적 행동 등 정서 문제가 외현화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품아의 돌봄과 교육을 통해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정서, 행동, 그리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임상범위에 있는 척도에서 준임상 범위나 정상범위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YSR(행동평가척도) 검사 결과

- * 임상 범위
준임상 범위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수준'
- ** 준임상 범위
해당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다소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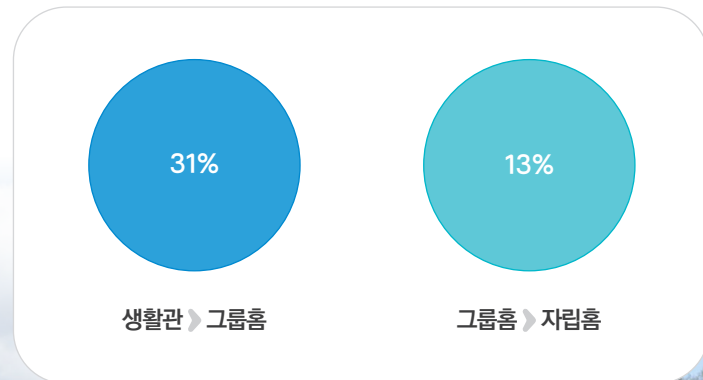


2021년 평가 대상자 13명 중 10명이 내재적, 외현화 척도에서 높거나 다소 높은 수준(임상범위/ 준임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옮겨가, 불안 정서 및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상태가 상당부분 호전됨을 보여주었습니다.

2. 세상을품은아이들은 변화 의지를 보입니다.

생활관에서 그룹홈, 그룹홈에서 자립홈으로, 과정을 옮겨가는 비율을 나타내는 '전환율' 지표는 학생의 변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립홈 과정부터는 Snail Lab 대안학교 과정이고 오로지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입학 과정에서 생활과 교육에서의 성취와 성실함을 고려한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3번의 인터뷰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무릅쓰고 세품아에 남아 생활하겠다는 결심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내재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환율은 세품아의 'Deep change'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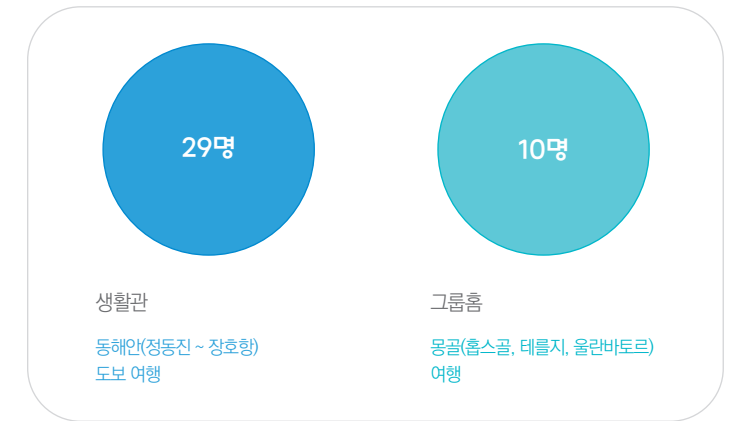
2022년 평균 전환율



3.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여행을 통해 치유됩니다.

세품아에 오는 아이들에게 여행은 추억에 가깝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고 물었을 때 아빠랑 손잡고 놀이공원 갔던 것, 엄마와 여행 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녀왔던 기억은 흐릿하지만, 좋았던 기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도보여행, 1:1 맞춤여행, 자전거 여행, 몽골 여행, 몽골 자전거 횡단, 산티아고 순례길 등 일반적인 아이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2022년 세상을품은아이들 여행지



국내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국토종주 2015/2016/2017 도보여행 2015(강화도) 2016(태안) 2019(포천) 2022(동해안/군산) 백두대간종주 2017 강화도 2014 군산 2017 입파도무인도여행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2006 호주 2007 말레이시아 2008 제주도 2010/2020 캄보디아 2011/2014/2015 몽골 2009/2010/2012/2013/2014 /2015/2016/2017/2018(힐링캠프/자전거몽골횡단)/2019/2022 산티아고 2016 스페인 2019

4.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음악교육은 세품아의 중점 수업 중 하나로, 모두 참여하는 필수 수업입니다. 세품아의 청소년들은 모두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일년에 3번의 기간을 가지고 3월-6월, 7월-10월, 11월-2월의 기간에 개인별 개인레슨과 공연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보컬,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건반등의 악기를 배우고 각자의 파트속에서 교

육 후 마지막 달에는 공연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밴드의 일원이 되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강렬한 몰입을 경험하고, 합주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다지며, 마침내 무대에 서는 경험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사회성의 변화

1.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상담과 코칭을 통해 마음을 열어갑니다.

생활관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상담은 새로운 어른과의 만남이며,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이때 무조건 '잘될거야'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남은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보고 이 곳에서의 생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아이들은 본인의 변화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아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은 변화의 목적, 방향성, 변화 후 기대효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주1회 1시간
(연간 52시간)

생활관 상담횟수(1인당)

주1회 30분
(연간 26시간)

그룹홈 코칭횟수(1인당)

가정통신문 예시

2.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세품아에서 나가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아이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매달 나가는 가정통신문과 주 1회 부모님과 전화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어도 재미있어지고 수학 재미있어지고 이런 얘기도 혹시 들었어요?

놀랐어요. 엄마 아빠가 맨처음엔 안 믿었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오늘 영어 제가 공부했다고 그러면 칭찬해줘요.

김세품(가명)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계신 곳은 벌써 봄꽃이 만개했을 듯 합니다. 포천도 낮에는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위가 가고 봄이 온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00이의 생활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자립을 아이들과 '메이크 오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전혀 자신을 돌보거나 꾸미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른 모습을 머리, 옷 등 스타일을 통해 변신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우는 과정. 소속자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숨어있던 나의 모습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과정. 시니어분들이 각자의 역할로서만 존재하시다가 본인의 모습을 찾고 인생의 제2막의 도전을 하거나, 삶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회차가 실제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르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머리까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세품아 내부 선생님들 통해 연결되신 상담통에 유명 헤어샵 대표님께서 친히 아이들 변화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정말 시골 아이들이었다면, 연예인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들의 손길을 받고 나니, 서울 아이들이 되어 버렸더라고요.ㅎ 너무 멋있죠?? 아이들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는 마음에 들었는지 몇 년 만에 셀카를 찍어 카카오톡의 대문사진으로 걸어두었습니다! 00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어머님.ㅎ... 아들 멋지게 키우셨어요^^(너 어릴적에 어머님이 정말 귀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니, 00이 할: 저 정말 귀여웠어요! 하더라고요 ㅎㅎ)

자립들은 지금 아이들과 나다움,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스타일의 변신을 통해 삶의 작은 변화를 시도 하기도 하구요, 3월 1일자로 여자 선생님들이 계셨던 숙소로 옮기면서 나만의 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개인 방이 생긴 아이들이 스토레스의 50%는 해결되었다며 좋아하기도 하구요, 또 각각의 스타일로 꾸미는 방법도 모델 하우스처럼 느낌 있게 변신했습니다^^단점이라면, 밤에서 안나와요.

요새 00이는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고요, 원래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조정기능사 필기 접수 기간은 놓쳐서 6월에 응시할 예정이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00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아직 부족하지만 더 해보고 노력하고 있어요.^^ 필들 텐데도 잘 해내고 있으니, 휴여 전화를 하신게 되면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 해주시면 00이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0이는 정말 좋은 어른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약한 이빨에 1차 브라켓을 부착했구요,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끝냈고, 다음주 토요일에 2차로 윗이빨 브라켓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이야기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해서 다시 아이때의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ㅎ

3월 말에는 00이가 하고자 하는 조정분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계신 창조원 대표님이 일하시는 곳(경기도 의왕)에 방문해서 사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회사도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 5월에는 조정 박람회도 같이 데

3. 세상을품은아이들은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사회성은 아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감각입니다. 아 이가 경쟁이 아닌 협력자로 살며 공동체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생활관과 교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역시 친구들입니 다.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긴 후에 적응의 속도가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좀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저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제 애들이랑 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고있고, 공부도 저 혼 자만 힘들었는데 같이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제 가 하기 싫을 때 옆에서 하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하 면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정세품(가명)

아이들은 '일과'를 수행하면서 밖에서의 균형과 절제가 없는 생활에서 규칙을 지 키는 생활을 경험합니다. 모두 8시에 일어나서 몸을 닦을 수건을 가져오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규칙들을 익히기면서 잃어버린 자기 관리 능 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세품아에선 아이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공 동체 속에서 각자 맡은 바를 다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식사 를 준비하고 치우는 일, 생활 공간을 청소하는 일, 종교 활동 중 예배를 이끌어가 는 일 등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분담을 통해 '세상 을품은아이들'이 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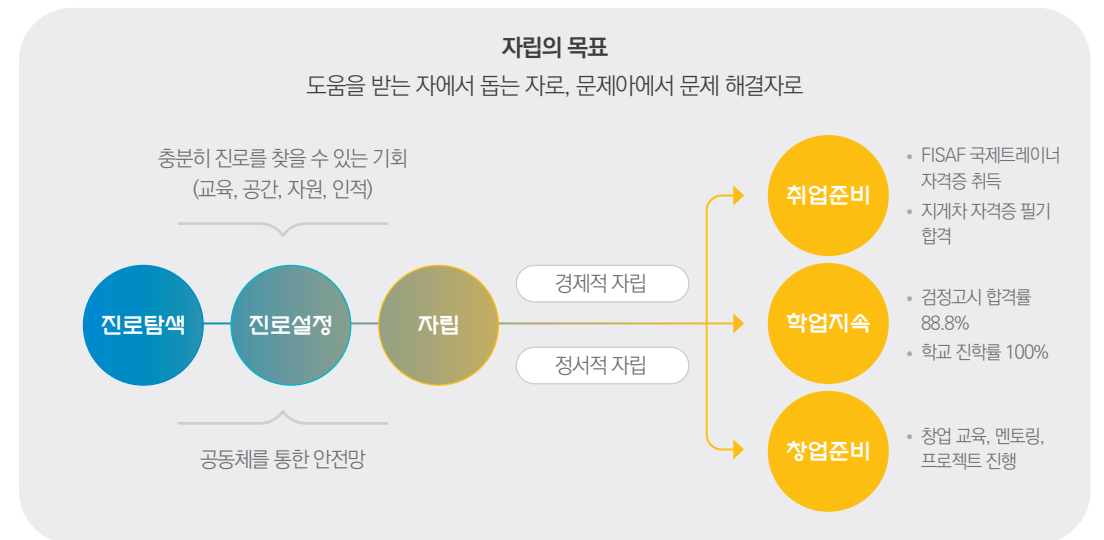


자립성의 변화

1. 세상을품은아이들은 자립을 준비합니다.

자립홈의 아이들은 세품아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명확한 진로 설정은 자립 후 의 삶에서 경제적, 정서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립 성공률'과 직접적인 연관 성이 있습니다. 세품아에서 진로지원은 크게 학업, 취업, 창업으로 나뉩니다. 세 품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꿈을 몇가지로 구분짓거나 한계를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다양한데, 왜 직업훈련은 항상 바리스타 아니면 애견 미용사가 되어야하나요?



취업준비

세품아는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원하는 바리스타, 미용 교육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수단인 아닌 목적이 되었기에 환경적 어려움, 관계 장애 등을 맞닥뜨렸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 설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는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취득 완료		2022년 취득 진행	
- FISAF 국제트레이너 자격증	- 조경 기능사 (필기/실기)	- 지게차 기능사 실기	- 생활 체육 지도사
- 지게차 자격증(필기 합격)	- 반려동물 프로 매니저 과정(필기/실기) 반려동물관리사/행동교정사/식품관리사/팻시터	- 한식 조리 기능사	

학업지속

세품아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대체로 공부는 낯선 것입니다. 세품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업을 포기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기에 도리어 조금의 성취로도 처음 느껴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취감을 발판 삼아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품아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수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지식행김, 마음행김 수업과 검정고시 준비수업으로 나누어지고, 필수 과목 이후로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행김: 기초 학업

Challenge Lab	Change Lab	Change Maker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수학 파닉스영어 영단어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 30일 완성 마블시리즈 영어 한국사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티븐영어 한국사2급/1급

생활관에서는 기초학습을 통해 학업수준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기본 과목으로 한국사 기초, 초등수학, 파닉스 영어를 배웁니다. 그룹홈으로 넘어오기전 초등수학은 6학년까지, 한국사 기초, 영단어 500개와 초등 파닉스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사는 기본과정으로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을 보고 4, 5, 6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그룹홈, 자립홈 과정은 조금 더 심화됩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고급과정(1, 2, 3급)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자립홈으로 올 때 자퇴를 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마음행김: 독서

Challenge Lab	Change Lab	Change Maker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모임 [ABC] - 세 개의 클래스 운영 / 각각 주 1회 X 1.5시간 - 목표: 읽기 능력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책.책 - 주 1회 X 2시간 수업 -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라를 찾아라 - 주 2회 X 3시간 수업 - 책을 오감으로 만나기 - 독서노트 작성

마음행김 과정은 세품아만의 국어 수업입니다. 생활관 아이들은 '독서모임 ABC' 수업을 통해 텍스트를 유독하며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기릅니다. 그룹홈 아이들은 기존 교과서 수업 대신 주1회 면내 도서관 방문, 주 1회 책책책 독서수업, 주2회 아이브러리 수업을 통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특히 책책책 수업에서는 1달에 책 1권, 6개월간 총 6권의 책읽기를 목표하고 책을 읽은 뒤 자기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생활관에서 그룹홈으로 넘어오는 많은 아이들의 걱정은 글을 읽고 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워낙 기초가 약했던 탓인지 6개월 뒤 아이들의 글 쓰는 능력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립홈에서 국어과목은 주1회 월라를 찾아라 독서수업, 주 1회 유니버시티를 통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룹홈에서보다 책을 더 집중적으로 읽고 그 책 자체를 본인 스스로 다시 소화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 [오디오북, 도서, 영화, 드라마, 다큐 등]를 통해 독서를 만납니다.

창업준비

세품아는 청소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이들이 창업 관련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한 MTA 과정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MTA 교육은 실제 팀기업 구성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며, 팀 협업역량(teampreneurship)과 경험기반 학습(learning-by-doing)을 강조하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 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과정을 세품아에 맞게 더 짧은 주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 준비 프로그램 지원, 멘토를 초청하여 실무 교육을 받는 시간, 지역 자원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 진행 등 세상을품은아이들의 기업을 정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MTA(Mondragon Team Academy)

1993년 핀란드 유바스칼라 대학에서 시작된 TA(Timii Academia) 교육방식은 25년간 평균 94%의 취·창업률을 기록하며, 핀란드 내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자 요하네스 파트너스는 기사작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TA 교육방식을 도입해 MTA(Mondragon Team Academy)로 재탄생시켰으며, 스페인에서도 97%의 취·창업률을 달성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MTA 창립자인 호세 마리 루자라가는 아소카 펠로우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주도로 아소카한국, 성균관대, 계원예대 등이 함께 진행한 '학생들을 위한 팀-엔트러프러너십(Team-Entrepreneurship) 프로그램', 본격적인 창업 과정으로 2017년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되었던 '문화콘텐츠 협동창업과정'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협동창업과정 프로그램 수료 후 3개월 안에 참석자의 65%가 창업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본 과정은 창업에 필요한 스킬보다는 철저히 실전을 통해서 창업가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태도,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지 않고 팀으로 함께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프로그램 수행내역

2013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팀 신청(도꼬다이/피터의 호수)
2014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4팀 신청(Soul Code/Spirit tour/몽클사운드/도꼬다이) H-온드림 펠로 지원사업 1팀 신청(피터의 호수)
2015	어게인
2016	"5ive story" 창업
2017	마음을 채우는 집밥 "Huggy(허기)" 창업
2018	창업교육모델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한양대학교 경영대학×행복나눔재단×세품아) 행복투게더 After 창업 자립모델 Pilot project 운영(분야 : 자동차 고급스팀세차)
2019	창업교육모델 인벤처십 프로그램 운영(한양대학교 경영대학×행복나눔재단×세품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팀 선정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Pathmakers" 사업자 등록 및 비즈니스 진행(몽골 여행 3팀 운영)

더 큰 변화

자립, 그리고 더 큰 변화

작은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한 아이의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자립의 모습은 아이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몇 가지 공통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변화를 이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를 '나 다움', '자기다움'을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 관리하고, 본인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게됩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 주말에 자기가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근 차근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차상민 선생님

둘째는 불편한 환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근육을 키운 아이는 어려움을 겪어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보단 한번 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체적으로 대응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어쨌든 자기 삶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하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가기는 해요. ... 여기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인 거예요

박새미 선생님

마지막으로 자립이 준비된 아이들은 관계 맺는 모습이 이전보다 원활해집니다. 자립은 결코 외로이 서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립은 네트워크 속에서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주변의 사람들과 무리 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공동체 속에서 한층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서적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소한 태도들이 될 수도 있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기초적인 것도 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될 생각을 해요. ... 어쨌든 자립은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졸업생 000

5년 10년 이후에도 삶이 달라져 있는 아이들, 바로 서있는 아이들을 몇 명이나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세품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을 가져도 홀로 서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자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마음 밭에 씨앗(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한 물과 영양분,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을 함께해서 첫번째 꽃을 피우는 것,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 모두 세품아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품아에서 다시 한 번 사회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세품아가 만들어낸 변화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에 크게 기대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6호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연속 지원의 체계화,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 추적관리, 보호처분 기관 간의 협조 등을 위해 세품아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Second chance for the youth

세품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이 사명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품아의 가족입니다.

